


 금융위원회	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	
 금융감독원				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	
보도		배포 후 즉시		배포	
				'21.11.26.(금)	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(02-2100-2830)	담 당 자	김 경 문 사무관 (02-2100-2824) 김 나 혜 사무관 (02-2100-2836)
	금감원 은행감독국 부국장 김 욱 배(02-3145-8022)		김 형 원 팀장 (02-3145-8040)
	은행연합회 상무 김 평 섭(02-3705-5050)		여 인 채 부장 (02-3705-5704)

**제 목 : '21.4분기중 입주예정 사업장에서 잔금대출이 차질없이
공급되고 있습니다.**

회의개요

- 11.26일,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수분양자의 잔금 대출 관련 ‘입주사업장 점검 TF’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
- 금일 회의에서 입주 사업장별 잔금대출 취급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.

◆ '입주사업장 점검 TF' 회의 개요

- 일시: '21.11.26.(금) 9:30 ~ 10:30
- 참석: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은행연합회

II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

- **(입주예정 사업장)** '21.4분기중 입주예정 사업장은 117개로 11.26일 현재 입주 진행중인 88개 사업장에서 대출 가능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자들에 대한 잔금대출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- **(잔금대출 취급계획)** 금융권은 117개 사업장에 대해 9.3조원*(해당 사업장에 대한 여신 승인액 기준)의 잔금대출을 취급할 계획입니다.

* 사업장별로는 10월 입주 사업장이 2.0조원, 11월 5.6조원, 12월 1.6조원

- 현재 입주가 진행중인 10~11월 입주 사업장의 경우, 입주자의 잔금대출 신청 규모는 3.2조원으로 금융권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대출 취급계획(7.6조원) 대비 42.1% 수준입니다.
-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신규 잔금대출 신청이 있는 경우 공급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
- 12월에 입주가 시작('22.1~3월중 입주 마무리 예상)되는 29개 사업장의 경우에도 금융권에서 잔금대출이 1.6조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.
- 이들 사업장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내년에 자금배정을 추가할 예정으로, 잔금대출 공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

월별 입주 예정 사업장 및 잔금대출 취급계획

(단위 : 개, 조원)

구 분	10월		11월		12월 ^{주2)}		합 계	
		잔금대출 ^{주1)}		잔금대출		잔금대출		잔금대출
합 계	36	(2.0)	52	(5.6)	29	(1.6)	117	(9.3)
수도권	18	(1.4)	20	(2.6)	15	(1.0)	53	(5.0)
지방	18	(0.6)	32	(3.0)	14	(0.6)	64	(4.2)

주1) 11.26일 현재 쏘 금융권 잔금대출 취급계획 합계

주2) '22년에 잔금대출 승인액 추가 부여 예정

- ☐ **(주요 민원내용)** 일부 사업장에서 ①잔금대출 취급여부 안내 미흡, ②잔금대출 조기 소진 등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.
- 과거와 비교하여, 금융회사들의 잔금대출 취급결정이 다소 늦게 이뤄짐에 따라, 잔금 마련에 불안을 느끼는 입주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.
 - 이에, 금융권은 영업점 등을 통해 잔금대출 일정을 안내하는 한편, 대출 여력이 있는 금융회사가 잔금대출을 추가 취급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.

< 주요민원 및 조치 사례 >

① **(A사업장)** 입주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조합 등에서 **잔금대출 취급여부**에 대한 **안내**가 **없음**

→ **영업점에서 시행사** 등을 통해 **취급일정, 영업점** 등을 **안내**

② **(B사업장)** 잔금대출 신청자가 몰려 **선착순으로 잔금대출을 취급**하고 있음

→ 금융회사가 잔금대출이 원활하게 취급되도록 **영업점을 확대**하며, 잔금대출 취급여력이 있는 **금융회사에서 추가 취급**

□ **(향후계획)** 금융당국은 입주예정 단지의 잔금대출 취급 정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, '21.4분기중 수분양자의 입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